

손명수 차관, “코로나 19 확산 방지 위해 철도차량 방역에 만전 ” 강조

16일 대전 철도차량사업소 방역대응체계 점검·현장 종사자 격려

-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6일(월), 철도공사 대전 철도차량사업소를 방문하여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과 정비 현장을 점검하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먼저, 대전 철도차량사업소에서 철도공사의 방역대응체계에 대한 보고를 받은 손 차관은 “철도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예방을 위해 방역활동이 중요하므로 총력 대응해 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- 특히, 위험에 직접 노출된 상황에서 방역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과 승객을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직원들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개인 위생용품을 차질 없이 보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- 보고를 받은 후 손 차관은 철도차량사업소 입고차량에 대한 방역 활동 현장을 방문하여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의 어려움을 경청한 뒤 노고를 격려하고,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2020. 3. 16.

국토교통부 대변인